선불교 '無의 미학'으로 스티브 잡스를 읽다

이흥제 대표, 한국선학회 춘계대회서 발표

禪 '무의 미학', 잡스 경영 연계
i시리즈 상호의존적 초연결 지향
불교 인드라망 개념과도 맞닿아
기후위기 등 현안들 선학적 조명
선학회–동국대 WISE캠 MOU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적 기업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1955~2011)의 종교가 불교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애플을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스티브 잡스의 경영철학을 선학(禪學)적 관점으로 조명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흥제 이공(e空)갑골문명공장 대표(동국대 박사)는 6월 13일 서울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선사상, 스티브 잡스의 경영과 만나다'를 통해 스티브 잡스의 경영철학이 선(禪)의 핵심 종지와 맞닿아 있음을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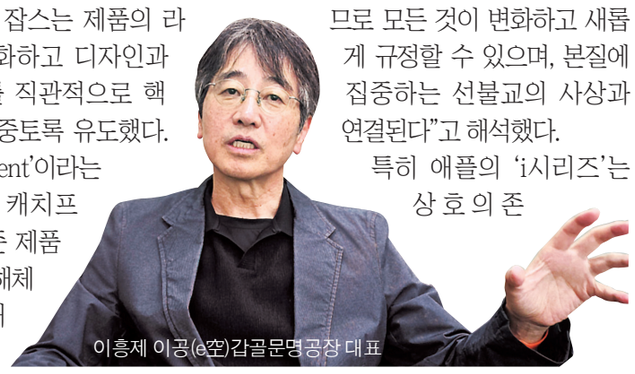
이 대표는 선사상의 핵심 요지를 '무(無)의 미학'으로 보고 "(선사상은) 선변(禪變)의 변화를 포착해 선화(禪化)의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머묾 없이 스스로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상호의존적 관계부터 시작해 변화 지향-차이 창출-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 비유적 프레임워크로 선사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된 논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호의존성을 바탕한 '무의 미학'은 존재를 '고정된 무엇'으로 보기보다 '끊임없이 되어가는(becoming)' 또는 '관계 맺음(relating)'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실체 중심의 존재론이 아닌 관계 중심의 관계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인드라망의 상호의존적 관계 설정이 현대 기업경영의 불확정성과도 연결된다고 본 이 대표는 스티브 잡스의 선불교적 경영철학이 △본질 집중과 단순함 △직관 중시 △고정관념 타파 △상호연결된 시스템으로 구현됐음을 분석했다.


세계적 기업인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1955~2011)의 생전 모습. 불교를 신행했던 그의 경영철학을 선학적 관점으로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 대표에 따르면 '본질 집중과 단순함'을 통해 잡스는 제품의 라인업을 단순화하고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으로 핵심 기능에 집중토록 유도했다. 'Think Different'이라는 애플의 대표 캐치프라이즈는 기존 제품군을 과감히 해체하고 재정의해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흥제 이공(e空)갑골문명공장 대표

이 대표는 "단순함, 직관 중시, 고정관념 타파 등은 고정된 실체는 없으므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새롭게 규정할 수 있으며, 본질에 집중하는 선불교의 사상과 연결된다"고 해석했다.

특히 애플의 'i시리즈'는 상호의존성에 바탕한 '무의 미학'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애플의 하드웨어(Mac, iPod, iPhone, iPad 등), 소프트웨어(macOS, iOS, iPadOS 등), 서비스(iCloud, 앱스토어, 애플 뮤직 등)는 긴밀한 상호 연결에 의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애플 생태계는 단순히 함께 작동하는 제품의 집합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된 상호의존성의 그물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보석이 다른 모든 보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인드라망에 대한 설명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강조하며 "잡스의 선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인드라망의 철학적 개념이 깊은 통합에 대한 그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형성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브 잡스는 시장조사나 설문지에 의존해 기존의 틀에서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직관을 통해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 제품을 창조하고자 했다"며 "이는 기존 기업들의 고객 만족법과는 다른, 고객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사회와 선 수행 방법론: 시대적 현안들에 대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현대사회의 현안을 선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김미선 청주대 교수는 '선시를 통한 선종의 인간관 고찰'을, 이석환 동국대 학술연구교수는 '환경문제의 불교적 해결을 위한 시론'을, 강지언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생은 '돈황본 〈단경〉과 포스트휴먼의 조견'을 문유정 화엄선연구원 연구원은 '생명윤리의 행위자에서 생명정치적 주체로-실천주체화 양식에 대한 선불교적 사유'를 각각 발표했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국선학회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학 진흥을 위한 다양한 학술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선학회는 학회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대종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장 혜명 스님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무형유산·진언 연구…불교의례硏 성과 '눈길'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성과보고회
자체 발간 학술지, 'KCI 등재'
대성사 수집 의례문헌 도록화
'한국불교 상용진언' 연구 발간
"의례 이론화 연구 매진할 것"



불교의례문화연구소는 6월 17일 서울 종로 연구소 사옥에서 성과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불교 의례 전문 연구기관인 '불교의례문화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교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불교의례문화연구소(소장 법안 스님, 이하 연구소)은 6월 17일 서울 종로 연구소 사옥에서 성과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교의례문화연구소장 법안 스님(조계종 어산작법학교 학장, 서울 대성사 주지)과 정승석 연구소 이사(동국대 명예교수), 성청환 동국대 박사, 남배현 조계종출판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성과는 불교의례문화연구소의 자체 발간 학술지 〈무형문화연구〉가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2년 만의 쾌거다.

불교 의례 및 무형유산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무형문화연구〉가 등재지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연구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스님은 "〈무형문화연구〉는 불교의례문화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집중논문들을 수록하고 있어 불교학자들에게는 학문적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논문과 달리 소외된 분야의 연구를 드러내고 종합하여 새로운 연구 방향으로 나아가는 연구자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대성사에 소장된 불교의례 관련 문헌들을 망라해 도록화 한 〈대성사 불교문헌〉(2024)과 불교의례 고문헌 주제의 학술대회를 잇달아 개최한 것도 연구소의 주요한 성과다.

이 같은 성과를 보인 연구소는 올해부터 KCI등재학술지인 〈무형문화연구〉 발간 등 내실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스님은 "불교의례 전승을 위해서는 실기와 더불어 이론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지가 필요한 것"이라며 "등재학술지 〈무형문화연구〉 발간을 통해 관련 연구가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기차타고 템플스테이·팔도장터 체험을

문화사업단, 코레일관광개발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운영
6월 29일 서울역 출발 상품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권백신)과 협력해 팔도장터관광열차 '템플스테이 테마기차여행' 상품을 운영한다"고 6월 16일 밝혔다.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프로그램은 6월 29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당일 여행 상품이다.

여행 코스는 △석종사(충북 충주) △망경산사(강원 영월) △구인사(충북 단양) △대승사(경북 문경) △미륵대흥사(충북 단양) △축서사(경북 봉화) △청량사(경북 영주) △봉정사(경북 안동) 8개 사찰로 나뉘며 각각의 사찰에서 차담·선명상·단주 만들기 등 템플스테이 체험 후 지역 전통시장 및 인근 명소 관광으로 구성된다.

석종사에서는 올해 신규 오픈한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를 탑승할 수 있으며, 망경산사는 청령포 방문과 오감으로 즐기는 와이너리 체험이 연계된다. 미륵대흥사에서는 만천하스카이워크 체험과 단양구경시장을 방문한다.

대승사는 문경새재와 점촌전통시장, 봉정사는 안동 하회마을 탐방과 안동구시장 방문, 구인사는 온달동굴과 온달관광지, 도담삼봉을 둘러본다.

축서사와 청량사는 템플스테이 체험 후 봉화목재체험장과 영주365시장을 포함한 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코스로 구성됐다.

상품 예약과 문의는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와 전화(1544-7755)로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불교유산 비파괴 분석, 국제저널 게재

불교유산硏–고려대 공동 연구
대산리사지 석불 비파괴 분석
암석 유사성 조사 원산지 특정

불교문화유산 비파괴 분석 조사를 통한 재질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가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됐다.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소장 호암 스님, 이하 연구소)는 "고려대 연구팀과 합동으로 진행한 폐사지 학술조사 연구 성과물이 최근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됐다"고 6월 16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영재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석조문화유산에 사용된 화성암 석재의 암질 특성과 원산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정밀분석 연구를 진행했고, 해당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이 국제 저명 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경남 함안군 대산리 사지 석조보살입상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비파괴적 과학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사에서 연구팀은 휴대용 장비를 이용해 석재의 광물학적·지구화학적·자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석의 유사성을 평가해 원산지를 특정했다.

특히, 심성암체 내 화학 성분의 공간 분포와 체계적 변화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석조보살입상에 사용된 석재는 현 위치에서 약 20㎞, 실제 운송 경로 기준 약 35㎞ 떨어진 특정 채석지에서 채석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호암 스님은 "이번 조사는 사지에 남아 있는 석조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유적 기원과 가치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이영재 고려대 교수는 "비파괴적 정량 분석을 통해 석재 출처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사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마곡사 오층석탑 국보 승격 기념 음악회

6월 14일 경내 특설무대서
원경 스님 "시대정신 계승"
최응천 청장, 지정서 전달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가 6월 14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7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대광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음악회는 공주연정국악원의 식전 축하 연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주지 원경 스님에게 국보지정서를 전달했다.

원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음악회는 올해 1월 오층석탑이 국보로 승격된 것과 마곡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라며 "지정서 전달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신앙과 예술이 녹아 있는 문화유산의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오층석탑은 수행자의 염원과 시대 정신이 깃든 신앙의 상징인 만큼, 앞으로 문화유산을 세계와 나누는 살아 있는 도량으로 가꾸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응천 청장은 "마곡사 오층석탑은 충청도와 호남지역의 석탑 양식이 계승된 대표적인 유산"이라며 "마곡사 오층석탑이 국보로 승격된 것은 마곡사 스님들과 신도, 불교계 모두가 노력한 결과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오층석탑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탑이자 건축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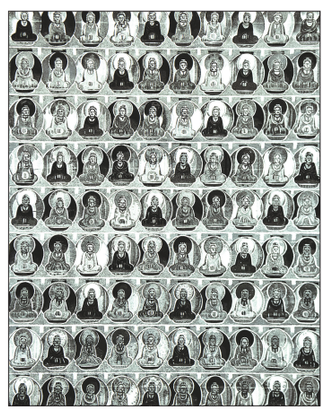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원경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음악회는 색소폰 연주자 릴리킴의 무대를 시작으로 가수 황가람, 김수찬, 박창근 등이 공연을 펼쳤으며, 마곡사연합합창단의 합창으로 마무리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韓中 예비 佛母들 작품 한자리서 만난다

동국대학교 · 항저우불학원
'불법동원' 불화 특별전
6월 19~30일 갤러리동국서


윤소현(동국대 대학원 미술학과 불교미술 전공)의 작품 '염불'.

한국과 중국의 예비 불모(佛母)들의 작품을 한자리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교내 문화관 지하 1층에 위치한 갤러리동국에서 2025년 불화특별전 '불법동원(佛法同源)'을 개최한다.

'불법의 교리는 하나에서 비롯됐다(佛法同源)'라는 의미를 가진 이번 전시에서는 동국대와 항저우불학원 학생들이 서로의 작품을 통해 생각과 감성을 자유롭게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이번 전시는 2024년 불화특별전을 개최한 데 이어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로 마련된 두 번째 전시로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고유성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전시는 동국대 불교미술대학이 주관하고 절강성불교협회(浙江省佛協會)와 중국 항저우 영은사(靈隱寺)가 후원한다. 전시 참여 작가는 한국 21명, 중국 11명 등 총 32명이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이수예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교수는 "한 해를 넘어 지속되는 교류 전시는 문화 교감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재학생들과 일반 관람객 모두에게 불교의 철학과 미술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